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15일(한국시간) 발표한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자들. 왼쪽부터 '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 마리아 바카로바, '할빌의 노래' 글렌 클로스, '더 파더' 올리비아 콜맨, '핑크' 아만다 사이프리트, '미나리' 윤여정. AP·뉴시스

“섬세한 연기 최고”... “압도적 경쟁자 없다”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전찬일 영화평론가)

클로스·사이프리트·콜맨 등과 경쟁 30개 여우조연상 흐름도 무시 못해 심사위원단 구성 변화 영향 미칠듯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만 “이미 승자가 된 것 같아 혼자 축하주를 마셔야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국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윤여정(74)은 겸손함 속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 촬영을 마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15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돌아온 그의 상기된 표정을 AP통신은 그렇게 전했다.

외신들은 “역사적”이라는 수식도 달아 주었다. 윤여정과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상(정이사 감독)·음악상, 또 다른 주역 스티븐 연의 남우주연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영화 ‘미나리’의 수상에 대한 최고조의 기대감으로 비친다.

● “연기의 섬세함을 봤다”

물론 “실제 수상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제한다. 그러면 서도 그들 역시 윤여정과 스티븐 연, ‘미나리’의 수상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여정은 4월26일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할빌의 노래’의 글렌 클로스, ‘핑크’의 아만다 사이프리트,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등과 경쟁한다. 글렌 클로스와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대중적 인지도와 연기력을 갖춘 할리우드 스타이다. 올리비아 콜맨은 2019년 ‘더 페이버릿’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저력을 지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포진 안에서 윤여정이 빛을 발할길 기대했다.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지

난해 한국영화 ‘기생충’이 테마로 인정을 받았다면,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인 ‘미나리’의 윤여정 등이 후보가 된 건 작품의 더욱 섬세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들여다봤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윤여정이 최근까지 미국의 여러 비평가협회 등으로부터 30개의 여우조연상을 받은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짚었다. 그는 “그만한 화제를 이끌어낸 배우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 아카데미상의 “역사적” 선택은?

또 아카데미상이 인종과 성별 등 다양성을 향한 변화의 길 위에서 올해 연기상 부문의 20여명 가운데 9명의 유색인종을 후보로 올린 것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회원과 심사위원단 구성이 달라지면서 윤여정의 수상 가능성 역시 커지

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나리’가 “압도적인 스토리는 아니다”는 점은 배우들과 작품의 수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전 평론가는 ‘미나리’가 “매우 잘 짜여진 이야기, 웰메이드 작품이기는 하지만 압도성은 다소 부족한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후보 지명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미 승리한 기분”이라는 윤여정의 겸손함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영어 자막이 들어간 영화가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 작품상 등 후보에 올랐다”면서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아카데미상의 변화를 일게 한다”고 말했다. LA타임스, 로이터통신, 포브스 등 많은 외신이 “역사적인 오스카 후보 선정”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윤여정 기자 tadada@donga.com

6세 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영화화

영화 ‘미나리’ 탄생 비화

미국 이민 2세 정이사의 경험 바탕 2018년 시나리오 들고 배우 찾아가

“이유는 딸”이었다. 극중 아들 데이비드(엘런 김)와 같은 나이였던 6살의 실제 딸에게 정이사 감독은 미국 이민 2세대인 자신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자신의 또래 경험도 살려냈다. ‘미

나리’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실제 영화화는 아직 멀었던 때였다. 사촌 매부지간인 배우 스티븐 연에게 시나리오를 건넸다. 그 역시 이민 2세 대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라났다. 그는 스토리에 감흥했고, 브래드 피트가 이끄는 제작사 플랜B로 향했다. 플랜B 소속 프로듀서 크리스티나 오는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다”며 투자와 제작에 나섰다.

정 감독은 2018년 시나리오를 들고 한국으로 날아왔다. 한국계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며 인천 송도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강단에서 윤여정의 영화를 강연했다. 그리고 실제 그를 만났다. 한예리와도 시나리오를 매개로 대화했다.

결국 이듬해 여름 이들은 미국 오를라호마 털사에서 의기투합했다. 따가운 햇볕을 견뎌내며 척박한 들판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 오로지 주먹 한 채가 덩그러니 선 그곳에서 이들은 ‘집’과 세트인 트레일러만을 오갔다. 그러는 사이 함께 밥을 해먹으며 문어체 영어 대사를 입말의 한국어로 바꿔갔다. 앞서 영어 시나리오를 우리말로 번역한 흥여을 번역가의 힘도 컸다.

20여년의 저예산으로 1980년대 희망을 좇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농장을

꾸꾸는 한민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됐다. 윤여정과 한예리는 모녀지간으로, 한예리와 스티븐 연은 부부로서 이민자들의 신선한 일상을 연기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한국 식물 미나리에서 따온 제목처럼, 이들은 진짜 가족 같은 힘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에서 윤여정은 이렇게 말했다.

“미나리는 집조차 아무 데서나 막 자리나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들 가난하든. 김치에 넣어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아플 때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Wonderful), 원더풀 이란다.”

윤여정 기자

연예뉴스 HOT 3

김동완-에릭 화해 “서운했던 부분 잘 마무리”



김동완

에릭

갈등을 빚어온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과 에릭이 화해했다. 김동완은 16일 SNS에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만들어 죄송하다”면서 “에릭과 대화는 잘 했다. 함께 자라난 멤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15일 밤 에릭을 만났다는 그는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대화가 단절됐고 이로 인해서 서로 점점 더 큰 오해가 생겼다”면서 “서로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잘 마무리했다”고 이번 갈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한 이견을 공개 표출하며 갈등 양상을 빚었다.

BTS, CEO가 뽑은 한국을 빛낸 인물 1위에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 부터 ‘한국을 빛낸 인물’로 뽑혔다. 이들은 경영전문지 월간 현대경영이 국내 500대 기업의 91명 CEO를 대상으로 ‘올해의 CEO 명품’을 물어 16일 내놓은 결과에서 ‘한국을 빛낸 인물’ 1위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방탄소년단은 45.7%의 지지를 얻었다. 축구스타 손흥민(34.8%)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15.2%)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5일 일본 레코드협회의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베스트 아티스트’ 아시아 부문 등 모두 8관왕을 차지했다.

“놀면 뭐하니?”, ‘안나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MBC ‘놀면 뭐하니?’가 무료급식소 ‘안나의집’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MBC는 지난해 ‘놀면 뭐하니?’가 ‘유산슬 프로젝트’ 수익 1억6000만원을 ‘안나의집’에 기탁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급식 사업에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MBC 박성제 사장과 ‘놀면 뭐하니?’의 연출자 김태호 PD 등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해 ‘안나의집’을 운영해온 김하중 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놀면 뭐하니?’의 큰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70대 발레 꿈나무 박인환 “언제 이런 역할 해보겠나”

tvN 새 월화극 ‘나빌레라’ 주인공 6개월간 매주 두차례씩 레슨 받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무조건 도전했죠.”

배우 박인환(76)이 뜨거워 ‘황혼의 도전’에 나선다. 22일부터 방송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오랫동안 꿈꿔온 발레에 도전하는 노년의 우체부를 연기하며 ‘꿈’을 그린다. “군고 뺏겨진 몸”으로 고민도 따랐지만, 결국 발레복을 집어 들었다. “또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드라마는 슬럼프에 빠진 젊은 발레리노와 70대의 ‘발레 꿈나무’가 선생과 제자로 만나 발이는 이야기를 담는다. 20대 발레리노 송강과 사제지간, 나문희

와는 아홉 번째 부부의 연을 맺는다.

작년 여름 시작한 촬영을 최근 마쳤다는 박인환은 16일 제작발표회에서 “5개월이 넘는 시간, 후회 없이 찍었다”며 “시청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고 설렌다”고 말했다. “미리 읽은 동명의 웹툰 원작이 준 깊은 감동과 여운” 그리고 용기와 꿈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몸에 딱 붙어 민망한 발레복을 입는 것조차 쉽지 않아도 무조건 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캐스팅 직후부터 촬영을 마칠 때까지 6개월여 동안 한 주 두 차례 개인 레슨을 받으며 발레를 배웠다. 함께 원작을 읽은 손자로부터 “할아버지는 머리가 커서 만화 캐릭터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귀여운(?) 핀잔도 들었지만, 30여년 만에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하는 주인공”으로서 더욱 욕심을 냈다. “백여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맡아 영광이자 행운”이라고 강조했다.

제작진과 후배들의 신뢰도 도전의 바탕이 됐다. 연출자 한동화 PD는 “제작진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주연”이라며 캐스팅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49세 나이차인 송강은 “워낙 ‘대선배’여서 첫 촬영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편안하게 해주셔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고 돌이켰다.

박인환은 “도전의 의미”를 담은 발레를 익히며 다시 한 번 자신의 꿈을 되새겼다. “56년간 끊임없이 해온 연기”다. 그는 “연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꿈이자 축복”이라며 “시청자에게도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코로나 시대,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사람 냄새나는 드라마로 잠시나마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박인환이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에서 뒤늦게 발레에 도전하는 70대 노인을 연기한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N